

진행 중

The Natural World

사진 17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영상 《Field and Sea》(2026) 포함
진행 중

표지: *Freedom*

진행 중인 연작

연작	*The Natural World*
상태	진행 중
작품	사진 17점
매체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한정 에디션
영상	*Field and Sea*, 2026

"자연 속에서 시간은 느려지고, 주의가 돌아온다."

《The Natural World》는 빛과 물, 날씨, 그리고 자연 세계의 느린 시간을 담은 진행 중인 사진 연작이다.

위에서 내려다본 먼바다, 움직이는 물의 표면, 새벽에 흩어지는 수평선, 고사리의 짙은 초록. 각 이미지는 단 한 순간의 주의를 붙잡는다. 이 사진들에서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이 작품들은 보는 이에게 속도를 늦추고, 평소보다 오래 바라보기를 청한다.

연작에는 키프로스 해안에서 촬영한 영상 《Field and Sea》(2026)가 함께한다. 그 안에서 같은 요소들은 시간 속에서 움직이도록 허락된다.

연작은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대로 더해진다.





Dawn · Fern · Placid

작가 소개

루벤 반 스할름(1988년생)은 뉴욕, 암스테르담, 텔아비브를 오가며 활동하는 네덜란드의 시각 예술가다. 사진과 영상으로 빛과 물, 날씨, 그리고 자연 세계의 느린 시간을 기록한다.

문의: info@rubenvanschalm.com